



이 학 영 | 고려대 수생태해설사 교수
/ 이학박사
(rhys@hanmail.net)

이학영의 자생어 칼럼 36 우리 하천 우리 물고기 금강의 추억- 감돌고기

학 명 : *Pseudopungtungia nigra*
 지역 방 언 : 가새파리, 거머중고기, 충칭이, 돛쟁이, 줄돌고기,
 돌쉬리 등
 분 류 : 잉어목 모래무지아과
 자 생 수역 : 금강, 만경강, 웅천천 등의 일부 수역
 주 서식장소 : 2급수 이상의 맑은 여울
 번 식 기 : 5~6월
 크 기 : 10cm 내외

감돌고기는 아름다운 물고기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어종이므로 학술적으로도 그 가치가 높은 물고기이지요. 우리나라 자생어종 공부에 처음 입문하는 애어가들 중에는 이 물고기를 쉬리나 돌고기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생김새가 두 종과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체형은 돌고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 배지느러미, 뒷지느러미에 여러 개의 검은 줄무늬가 드리워져 있는 것으로 다른 두 종과 어렵잡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줄무늬가 태극기 가장자리의 검은 도안인 것처럼 뚜렷하니 감돌고기도 우리나라 국력신장을 위해 물 속에서 지느러미를 흔들며 응원을 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쉬리 보다는 더 강한 종입니다만 생활력이 강한 돌고기보다는 약한 어종으로 2급수 이상의 맑은 물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쉬리와 돌고기는 우리나라 거의 전 수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지만 감돌고기는 충청도와 전라북도를 흐르는 금강, 만경강 및 웅천천의 수계에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낯선 물고기입니다. 금강 수계인 황간, 영동, 금산, 무주, 장수, 진안 등에서는 발견 빈도가 다소 높은 편이나 만경강 등 다른 지류에서는 매우 발견하기 힘든 어종으로 환경부에서 보호 어종으로 지정해서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강바닥에 바위와 자갈이 깔린 곳으로 물 흐름이 빨라 산소가 풍부한 여울에 주로 서식하는 습성으로 인해 하천 오염, 하천 정비 작업 등 환경 변화에 취약한 어종이라 점차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필자는 오래 전인 2001년 7월 전라북도에 용담댐이 완공되어 물을 가두기 시작하는 시기에 어류 생태 전문역으로 한국방송공사 자연 다큐멘터리 환경스페셜팀과 함께 그곳을 찾았습니다. 댐의 수문을 막고 물을 가두기 시작하자 주변 자연 생태계는 커다란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대로 살아오던 집뚝, 논밭, 도로 등 인

간의 문화가 물에 잠기고 느티나무의 까치집, 들쥐의 구멍도 물속으로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고 무수한 종류의 곤충들과 벌레들이 목적지를 가늠할 수 없는 피난처를 찾아 긴 대열을 이루며 떠나는 안타까운 장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성서에 나오는 출애굽기, 모세가 이끄는 민중처럼 한 무리의 개미떼는 머리에 애벌레를 이고서 일사불란하게 이동을 하였습니다만 이들을 가로막은 새로운 물길은 끝내 두 줄기로 갈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물이 더 많아지니 모든 물고기들이 신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고인 물을 좋아하는 잉어, 붕어 등 몇 종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이 지역의 맑은 계류에 살던 돌고기, 감돌고기, 쉬리, 참갈겨니, 밀어 등은 새로운 지역을 찾아 물이 덜 고인 상류로 필사의 대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았던 감돌고기와 돌고기, 밀어 떼들의 이동 장면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 중 일부 소수 개체만 다행히 새로운 서식처를 찾아 살아남았으며 대부분은 고인 물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도태되어 갔습니다. 10cm 내외의 꼬마 물고기인 감돌고기의 생존 몸부림이 비단 용담댐 지역만은 아니기에 마음이 착잡함을 감출 길 없었습니다.

우리 물고기를 꼼꼼하게 좋아하는 재야연구가 한 분이 금강 수계의 한 곳에서 오염에 노출되어 죽어가던 감돌고기 몇 마리를 구출하여 입진강 수계에 놓아준 일로 한때 물고기를 연구하거나 기르는 동호인들이 이식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시끄러운 적이 있었을 정도로 감돌고기는 예쁜 생김새와 더불어 세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일단 감돌고기가 원래의 서식지에서 멸종당하는 일이 없도록 1차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우리 자연을 아끼는 사람들의 몫이자 지방 위정자들의 임무입니다. 감돌고기가 서식하는 지방의 하천변에 이 물고기의 그림과 더불어 안내판이 세워져 이를 지켜주는데 실질적인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돌고기는 주로 돌에 붙은 미생물이나 물속의 곤충을 먹으며 겁이 많아 돌이나 수초 사이에 잘 숨습니다. 조심성도



감돌고기 : 환경부 보호종으로 세계에서 오직 금강 등 우리나라의 일부 수계에서만 산다. 산란기 때는 천적인 꺾지 알기를 돌 같이 우습게 보는 두둑한 강도 가지고 있다.



감돌고기 취식중 : 수초 검정말에 붙은 작은 수서생물을 먹고 있는 감돌고기. 비교적 튼튼한 여중이나 남획과 오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주를 적시는 맑은 금강 자락 : 감돌고기가 터주대감으로서 감을 잡고 잘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금강지킴이 농부시인 임영봉님 : 수십 년 동안 금강의 자연을 지키고 감돌고기에게도 돌도 없는 친구가 되어주는 분이다. 다양한 연농사를 하고 있어 겨울을 제외하고는 온갖 잡연 속에 묻혀 산다.



금강 지류 통나무보 : 시멘트보 보다 친자연적인 통나무로 만든 여울보. 여기에 생성된 각종 유기물을 감돌고기, 쉬리 등 우리 물고기가 먹고 삼킨다.



감돌고기 성어 : 덩치가 커질수록 태극 줄무늬 껍이 뚜렷해져 누가 보아도 우리나라 물고기다.



무주탐사단 : 감돌고기의 서식처를 연구하기 위하여 방우리와 무주 부남면을 찾은 수생태해설사 과정 현장학습탐사단.

담한 행동을 하여 <물속의 빠꾸기>로도 점차 알려지고 있습니다. 껍지가 알을 부화할 때 까지 지키는 생태를 어이 알고 그들의 알을 탁란하는지 그 원초적 본능이 경이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거머딩미리, 거머중고기, 껍떡뚱고기, 줄명탕이, 도꼬마지, 충칭이, 줄피리 등 여러 가지의 사투리가 서식지 일대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 번식 등 개체수를 늘려 세계적인 관상어로 개발할 수 있는 물고기가 바로 감돌고기입니다. 감돌고기 서식처 생태하천 복원 설계시에는 2급수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바위와 자갈이 깔린 하상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천적이자 산란터 동기인 껍지와의 공생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많아 다행히 낚시에는 잘 걸리지 않지만 환경오염에는 속수 무책입니다. 5-6월이 주 산란기로서 개울의 돌이나 바위 틈 사이에 알을 낳습니다. 이 친구들은 포악한 육식어종인 껍지의 산란터에서 껍지의 알 옆에 자신의 알을 슬어 붙이는 대

물결 감돌던 거기 여울엔

상감 이학영 / 시인

고향 용담
수정으로 맑게 깨어진 물
금강으로 내려오던.

애들아
물맛이 탁해지는구나
이사를 가야겠다.

떠나는
감돌고기 무리
지느러미 분주하지만

물결 감아 도는 여울
이젠 넘친 물만 남아도는데

흐린 물빛 서리던 날
태극기 줄무늬 날리며
어디로 갔는지.
감돌고기여

푸르게 멎든 강물을
마시고 돌 틈을 지나
독 오른 화살이 되어
쏟아 오르는 물고기 하나

그 강이 그림다